

<2022년 5월 8일 주일말씀>

## 나 여호와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시대 성경]

내 사랑하는 자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 여호와는 너희를 돕는 자이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행하리라.

지난날 네가 물을 건널 때도, 환난의 불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너를 구원하여 살리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함께 행하면 형통하리로다.

나 여호와는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사야 41장 10~14절] 개역한글

10.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1.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2.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같이, 허무한 것같이 되리니
13.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14. 지령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사야 43장 1~2절] 개역개정

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 오늘 주일은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을 꼭 지키며  
<생명>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

<시대 사명자>가 약속한 시간을 1초도 늦지 않게 지켜서  
생명들을 위해 기도한 지 ‘200일이 된 날’입니다.

- 그동안 <하나님과 성령님>은  
<때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며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섭리사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중심하여  
생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해 왔습니다.

- 하나님은 <시대 사명자의 기도>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행함>에 대한 응답으로  
“나 여호와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 먼저 <본문 말씀>을 설명하며 말씀해 주겠습니다.

-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심은  
〈기도의 약속대로 참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기도〉를 들으셨기에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사람〉은 ‘간절한 이야기’ 를 듣고서도

〈능력〉과 〈실력〉이 없어서 돕지도 못하고, 돕다가도 말게 되니,  
온전하게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존재자’ 시기에 절대 행하십니다.

- 〈하나님이 참으로 도와준다고 하신 말씀〉은

〈진실로, 절대 도와주겠다는 심정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 〈참으로〉라는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도와주시겠다〉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 〈시대 사명자〉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한 시간’ 을 지켜 기도하고,

<섭리사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도와주겠다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 이어서 본문 말씀에

“너를 돕는 자는 오직 나 여호와니라.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면서 ‘각종 어려움들’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간구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 여호와에게 눈물과 심정을 태우며 간구하니,

그 진실한 모습을 보고 나 여호와가 돕겠다.” 하신 것입니다.

-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이는 ‘최고 기쁜 말’입니다.

“전지전능한 나 여호와가 네 주인이니,  
뺏기지도 않고 꼭 잡고 도우며 같이 행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나 여호와가  
장마철 홍수 때나 급물살을 건널 때 잡아주고,  
각종 죽음에서 살려 주어 구원해 주며,  
환난의 불 가운데 처했을 때  
타 죽지 않게 이끌어 낸 것을 생각해라.

과거에 너를 도운 것을 잊지 말아라.  
그 여호와가 너를 또 돕느니라.” 하셨습니다.

- <각자가 처한 문제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뿐이십니다.

-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와 민족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많이 하셨어도,  
<참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은 ‘특별한 때’ 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오래도록, 참으로 애타게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신구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참으로 도와준다.”, “결단코 도와준다.” 라는 단어는  
극적일 때만 한두 번 쓰셨습니다.

-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 41장 10~14절을 보면,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잡아 주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멸망하여 네가 찾아도 없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굳어졌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지렁이같이 약한 야곱’이라고 칭할 정도로 약했지만,

오직 하나님을 절대 믿고 의지하니,

하나님은 <야곱>을 도와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외갓집>에서도 도우시고,

<야곱을 미워하는 에서>에게서도 도우시고,

<각종 환난>에서도 ‘참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며 더욱 도우시고,

‘참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 이와 같이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전쟁의 날에, 환난 때  
‘참으로’ 돕고 함께하시어 결국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 시대에 살아본 자>만 ‘그 심정’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니,  
안타까워하시며 “내 민족이니 참으로 도와주리라.” 하신 것입니다.

- <이스라엘 민족 자체>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들,  
<개인 자체>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고통들을

<전능자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에,

“사랑하는 <야곱>아,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아,

너는 <내 것>이니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므로 담대하고 굳세어라.” 하셨습니다.

-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 하나님은 <지난날>에도

“<내가 택한 섭리사>는 절대로 ‘나의 것’이다.” 하시며,  
‘참으로’ 돕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섭리사 모두에게

“내가 참으로 너희를 도와주어 잘되고 형통하게 해 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 성령님도, 성자도 하나님과 일체 되어  
〈우리의 삶〉을 ‘참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은 〈오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받는 자〉가 먼저 행하고 겪고 확신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 선생님은 한 사람이 열심히 간구할 때 ‘그 안타까운 일’을 보고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마.” 하고 도와주어 해결하게 했습니다.

이를 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간구하는 자의 일〉을 참으로 함께하여 해결해 주었듯이,

나 여호와도

〈너와 섭리사가 간구하는 것들〉을 참으로 도와주리라.” 하시며,

그 말씀을 더욱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행하고 말씀하신 것들〉을 확실히 믿어야,  
〈자신〉이 그에 해당했을 때  
“너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 하나님은 종교역사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 혹은 합당한 자〉를 쓰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돕게 하시며 ‘구원역사’를 펴 오셨습니다.

- 〈전능자 하나님〉은 매일, 매시간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그 뜻을 위해 사는 자들〉을 위해  
‘참으로 돕고 함께하시는 절대자 하나님’ 이십니다.

-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지구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믿게 하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고 위해주고 도와주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도와주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평생 ‘그 행위대로 도와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 마태복음 5장 45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해〉를 ‘악인’이나 ‘선인’에게 다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시며,

모두를 사랑으로 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 이와 같이 〈하나님은 종교역사 6000년〉 동안

〈메시아나 중심인물이나 선지자들〉을 통해 돕고 함께해 주시며  
‘구원역사’를 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더욱 참으로 돕고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 역사’를 이루십니다.

- 그러므로 저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과 성령님이 돕고 함께하심>을 더욱 알고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 되어 살아야 됩니다.

- <5월 8일 주일>은 ‘아버이 날’입니다.

- <부모>는 자녀를 낳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자녀를 돕는 일’을 합니다.

자식들이 어리나 크나,  
죽을 때까지 ‘참으로’ 돕고 함께하며 사랑해 줍니다.

<하늘의 부모이신 하나님과 성령님>도 그러하시고,  
<자기를 전도하고 기른 신앙의 부모>도 그러합니다.

- <하늘의 하나님과 성령님>은 ‘영의 부모’가 되시고,  
<땅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육신의 부모’가 됩니다.

모두 <하늘의 부모>와 <땅의 부모>에게  
감사하고 효도하며 ‘은혜 깊은 생활’을 하고,

<자기 영을 위해 수고해 주는 신앙의 부모>에게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걱정을 끼치지 말고 살기 바랍니다.

- <부모님>이 죽기 전에 ‘그 영과 육’을 위해 기도도 해 주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전도하여 효도해야 됩니다.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그 생명’을 부탁하며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효도’이자, ‘영원한 효도’입니다.

- <하늘의 영의 부모, 하나님과 성령님>께도  
미련 없이 사랑하고 영광 돌리면서 걱정 안 되게 살아야 되고,

<땅의 부모님>에게도 자녀로서 미련 없이 위해주고 섬겨주고  
고마워하며 대해 드려야 됩니다.

- <하늘의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육신을 낳고 길러 주시고 도와주신 땅의 부모님>과  
<전도하여 길러 준 신앙의 부모>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 <예수님>은 세상에 살 동안에  
불쌍한 자, 정신병자, 각종 아픈 자와 가난한 자,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 자, 그 영이 사망으로 가는 자들을  
밤낮 주야로 가르쳐 주고 구원시켜 주는 삶만 살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다 같이 :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감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 이 시대도 하나님은 <시대 보낸 자>를 통해  
‘참으로’ 돕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를 깨닫고 알고 기뻐 감격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고 더 기뻐하시며  
참으로 도와주며 행하십니다.

다 같이 :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  
“사랑하는 자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셨으니,  
<굳건한 믿음>으로 감사 감격하며 ‘그 심정’을 알아 드리고,  
‘담대하게’ 행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도 ‘감동 감화’로 역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같이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대화하기 바랍니다.

- <각자 맡은 사명>대로, <각자 처한 상황>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을 잊지 말고 부르고 찾으며  
함께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 하나님께서 <시대 사명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계속해서 <단상 말씀>을 중심하여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바랍니다.
- <삼위의 사랑과 말씀>이 충만하여 살기를 축원합니다.